



숲속 사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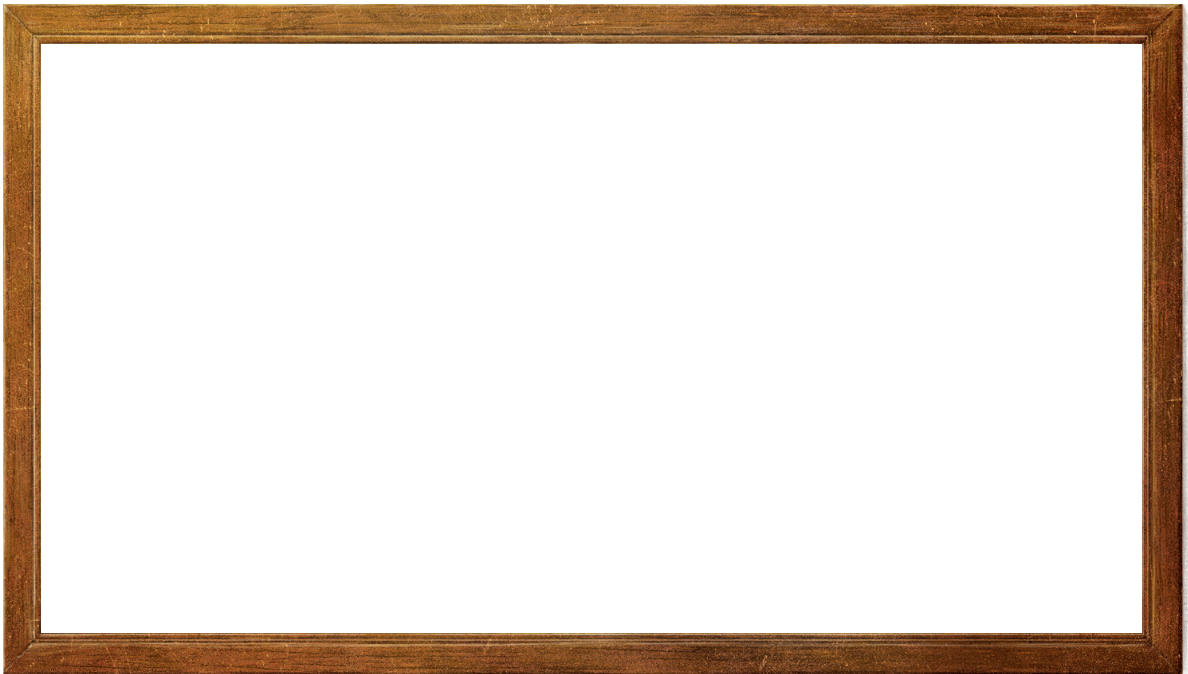
이시원 글·그림 / 고래벳속

작은 사랑의 표현이 만들어 낸 가장 행복한 순간!
다른 모습의 우리들이 가족이 되는 방법!

부영이 사진사와 곰 조수가 숲속 마을에 찾아와 '가족사진 전문 숲속 사진관'을 열었어요. 동물 가족들은 저마다 한껏 멋을 내고 와서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촬영은 어느덧 해가 몸을 누이는 시간까지 이어졌고, 길게 줄을 섰던 동물 가족들이 모두들 사진을 찍고 돌아갔지요. “나도 가족사진 갖고 싶어요!” 곰 조수와 부영이 사진사가 촬영을 마무리하려는데, 아까부터 사진 찍는 걸 바라보고 있던 꼬마 판다가 주뻔거리면서 다가오며 말했어요. 곰 조수와 부영이 사진사가 꼬마 판다를 위해 다시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잠깐!” 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간 줄만 알았던 동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동물 가족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숲속 사진관』은 ‘가족사진’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른 모습의 우리들이 가족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 1 『숲속 사진관』에는 다양한 모습의 동물 가족들이 나와서 저마다 멋진 자세로 사진을 찍어요. 우리 가족이 가족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자세로 찍으면 좋을까요? 그림으로 그려 보고 우리 가족을 소개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_____

- 2 숲 속 마을 동물들은 외로운 꼬마 판다를 위해 판다 분장을 하고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모두들 꼬마 판다와 꼭 닮은 모습이 되었답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고, 그 친구와 나의 닮은 점과 닮고 싶은 점을 찾아보세요.

친구 이름	나와 닮은 점	닮고 싶은 점

- 3 『숲 속 사진관』 그림을 멋지게 색칠해 보세요.

